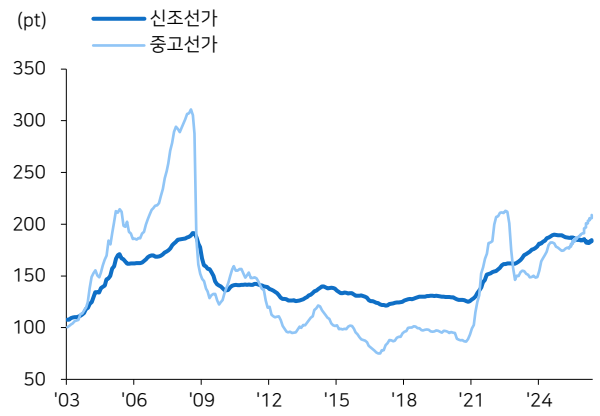
2026. 5. 21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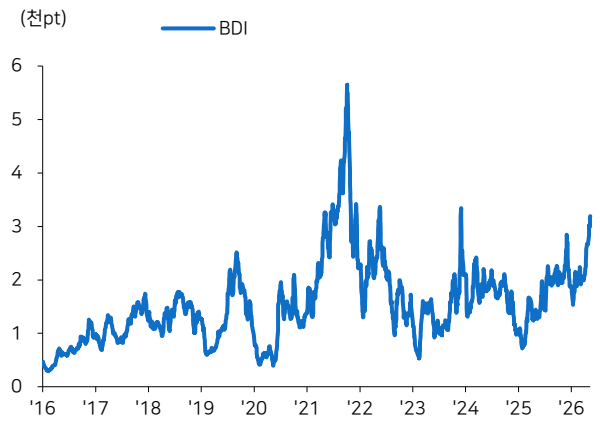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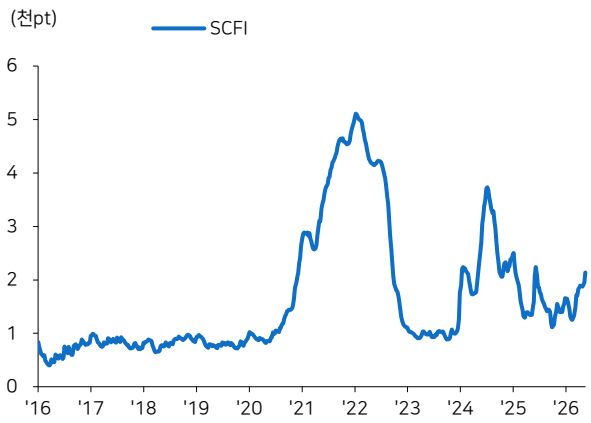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7.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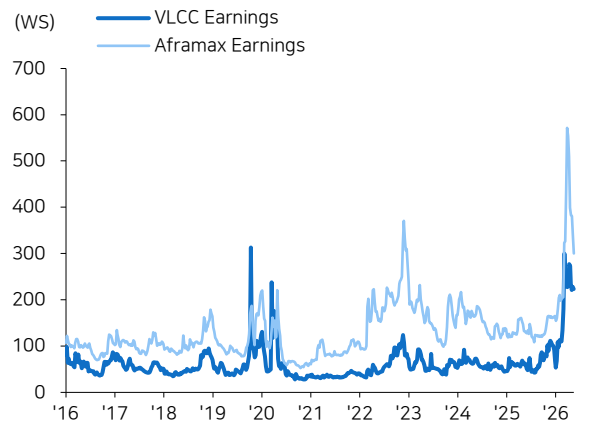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54.0p (-3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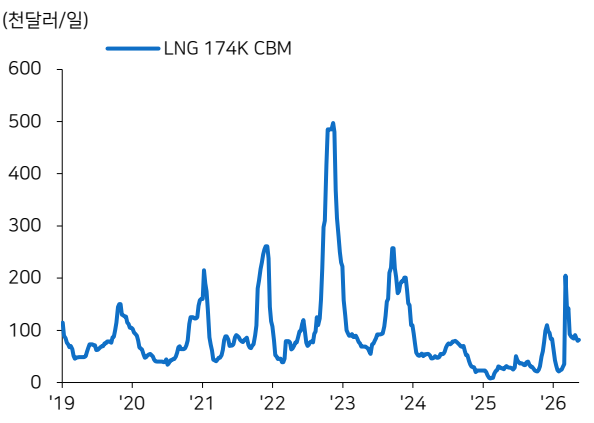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40.7(186.5 WoW)



VLCC Spot Rate 223.0WS (-4.7p WoW)



LNG Spot 운임 82.0천달러 (+2.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법, HD 현대중공업 사건 선고...노란봉투법 혼란 속 주목 (연합뉴스) https://zrr.kr/4IpffN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2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고 보도됨. 하청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권한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전해짐. 과거 판례는 원청의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성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올해 3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인 만큼 향후 산업계 전반의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무 리스크 체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AI 기반 함정 기술 역량 키운다 (뉴스 1) https://zrr.kr/OQCavp

한화오션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협력하여 AI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4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됨. 이번 연구회에는 군·학계·방산업계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함정 설계, 운용, MRO 체계 혁신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미래 해양방산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무인 무선수상정 공동 개발 등 첨단 AI 및 무인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짐.

표류하는 KDDX 사업, 2 차 입찰 D-9...HD 현대중공업 선택은? (더팩트) https://zrr.kr/1R5PyR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1차 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5월 29일 제안서 제출을 마감하는 2차 재입찰 공고를 냈다고 보도됨.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HD현대중공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가 제공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항고하는 한편 올해 12월까지 유효한 보안 감점 부담 등으로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며, 노조는 고용 안정을 위해 공정한 사업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전해짐.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 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며 단독 응찰로 정면 승부에 나선 상황으로, 만약 HD현대중공업이 2차 입찰에도 불참하여 2연속 유찰될 경우 한화오션과의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지나 법적 공방 지속 시 2032년 선도함 인도 일정의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알려짐.

QatarEnergy ducks delivery of LNG carriers from owners with charter clause loophole (TradeWinds) https://zrr.kr/PDUZ3R

QatarEnergy가 LNG 운반선 용선 계약상의 인도 연기 조항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신조선들을 발주한 선사들이 선박을 자사 선단에 편입하거나 재용선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QatarEnergy는 선박 인도 전 6개월 전에 통보하면 최대 2년간 인도를 미룰 수 있는 계약 상 권리를 활용해 이미 일부 신조선에 대한 인도 연기를 결정했으며, 이에 두 자릿수 규모의 LNG선을 카타르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던 특정 선사 등은 대체 용처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해짐. 중동 분쟁에 따른 라스라판 가스 기지 피격 및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 지연으로 올해 선박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LNG 해운 시장의 운임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라고 알려짐.

Strait of Hormuz may never 'return to normal', warns Kpler (TradeWinds) https://zrr.kr/UOejEj

에너지 정보 분석업체 Kpler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탱커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됨. 기존의 7월 해협 재개방 및 10월 운항 정상화 전망과 달리, 선사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수용하고 통항을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통행료나 이란 측이 제시한 '호르무즈 세이프(Hormuz Safe)' 보험료를 지불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기관과의 거래에 따른 규제 위반 및 통항 허가 절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해짐. 반면 Clarksons 등은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원유 재고 축적 수요가 맞물려 탱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내다봤다고 알려짐.

Average VLGC spot rates hit $6m per month amid 'scarce vessel availability' (TradeWinds) https://zrr.kr/5Unntc

VLGC의 스폿 운임이 미국 걸프만(USGC) 연안의 선박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한 달 기준 600만 달러 돌파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 중개업체 Fearnley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중동 물동량이 묶이면서 글로벌 LPG 교역의 핵심 축이 된 미국산 수출 물량을 확보하려는 화주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선박 가용성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6월 선적 계약 건수가 이전 대비 크게 급감했다고 전해짐. 이러한 선박 공급 부족 여파는 대형 가스운반선(LGC)과 중형 가스운반선(MGC) 등 중소형 선종의 운임 급등으로도 전이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타이트한 선박 수급 불균형 상황이 오는 7월까지 지속될 전망로 보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